

# 프랑스어 직업명사의 여성화<sup>1)</sup>에 대한 고찰: 프랑스어권의 지역별 비교

최 인 경  
(인하대학교)

## 1. 머리말

언어는 인간의 고유한 자산으로서 인간의 다양한 생활영역, 사고활동,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자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언어는 현실의 대상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정을 통한 개념을 표출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인식활동은 언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연관된 역동적 유기체이다. 이러한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언어외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사용은 그 변화가 심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계층, 지역적 조건, 성 등에 따라 다른 현상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어휘형태에서 성의 구별이 있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우리에게 낯선 일이다. 언어에서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남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un homme’는 ‘사람’

---

1) 본고에서 말하는 ‘여성화féminisation’은 불어에서 직업명사나 직책의 경우 남성형만이 존재하거나 남성형이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여성형이 만들어지거나 사용됨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또는 ‘인류’를 뜻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인간 또는 인류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남성만이 인류를 대표하며 남성이 우위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은 그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여성형을 만드는 방법에서도 본래 남성형에 -e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에서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 또한 남녀성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남성 복수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les étudiants은 남학생들만들 뜻하기도 하지만 남녀성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 어휘 형태에서는 여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식어가 붙거나 문장으로 완성될 경우 형용사 역시 남성 복수로 표기된다. (예문으로 Ces étudiants sont français.) 이런 경우 상황적 설명이 없다면 이 표기법만으로는 여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남성을 호칭하기 위해서는 Monsieur라는 단어 하나만 존재하지만 여성형에서는 결혼한 여인을 부르는 Madame과 그렇지 않은 여인을 지칭하는 Mademoiselle로 구별된다. 결혼의 여부는 남성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sup> 이에 관련하여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Frau-Fraulein으로 결혼의 상태가 구별의 기준이 된다.<sup>3)</sup> 그런데 오늘날 부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성불평등현상은 언어에서도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언어적 현상에 대한 규명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복합적인 분야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어 전체의 문제가

2) 이러한 현상은 성의 구별이 있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두 언어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말에는 부정적이고 성적 유희의 대상을 뜻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fille/Fräulein은 prostituée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정상현은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성주의적 특징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적고 있으며 성차별주의적 경우에 대해 Trömel-Plötz를 인용하고 있다:

“1)언어가 여성과 그 행위를 무시할 때 2)언어가 여성을 기술하면서 남성에 의존하여 종속적으로 파악할 때 3)언어가 여성을 스테레오타입적 역할 속에서 파악하고, 그 자질을 벗어나는 여성의 능력을 부인하려 할 때 4)언어가 여성을 경멸적 태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정상현, 「독일어 어휘형태상의 성편견현상과 그 비판」, 언어연구, 1992, p. 4-6

3) 정상현, p.5

아닌 직업명사를 지칭하는 어휘들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구별되어져있던 남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부응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남성의 형태만이 고집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어 문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여성형은 문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습 방법을 요구하는데 특히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에 대한 통시적 차원에서의 성의 구분의 변화는 언어의 변천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의 변천과정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sup>4)</sup> 구체적으로, 문법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구분에 의해서만 성을 구분하며 문법적 성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법적 규칙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된 프랑스어 명사의 성의 경우는 특정한 문법적 규칙에 적용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으며 이럴 경우 우린 이러한 명사들의 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단순한 문법적 규칙이 아닌 프랑스 사회 변천과정을 포함한 문화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고의 첫 장에서 통시적 관점에서 프랑스 직업명사의 여성화와 사회적 변화 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직업명사의 여성형과 이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직업명사의 여성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학습현장에서는 프랑스 불어를 기본으로 하는 매뉴얼이나 자료뿐만 아니라 TV5와 같은 퀘벡의 미디어 자료 또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분석을 통해 나온 자료는 직업명사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 방안 제시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4) 서덕열은 직업 명사의 여성화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il est important de préciser les motifs d'une politique de féminisation au niveau théorique. Selon les remarques métalinguistiques des commissions chargées de la féminis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ce changement linguistique doi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réaction aux changements sociaux. 서덕열,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et des titres en France et au Québec”, 불어불문학연구, 81호, 2010, p.494.

## 2. 직업명사 여성형

프랑스어 직업명사의 여성형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오늘날 사라지고 없거나 새롭게 생성된 어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언어의 특성상 그리고 언어체계가 갖는 관습성 또는 언어경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생성, 변화,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직업명사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1) 직업명사 여성화의 변화과정

고대 시대에 대부분의 권리에서 배제되고 그 어떠한 행정적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여성의 사회적 직위는 아버지나 남편에 따라 결정되었다. 여성의 주된 역할은 아이를 출산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의복을 세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프랑스어의 대부분의 어휘들이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는데<sup>5)</sup> 당시 프랑스어의 직업과 관련된 명사의 여성형은 첫째, -ier은 -iere (mercier/merciere), -teur은 -trice (auctor/auctrice), -eor은 -eresse (estuveor/estuveresse), 그리고 -ien은 -ienne (fuscien/fuscienne)의 형태가 되거나 둘째, 접미사가 없는 남성형 명사의 경우는 -e (marchand/marchande) 또는 -esse (maire/maresse)를 사용하여 여성형을 만들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사회적 직위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직업명사의 여성형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인지,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sup>6)</sup> 여성형

5) 라틴어에서 명사는 접미사의 형태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었다:

-us / -a : dominus (le maître) / domina (la maîtresse)

-tor / -trix : imperator (l'empereur) / imperatrix (l'impératrice).

그리고 특정한 직책이 여성에 의해 행해지거나 아내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어의 접미사인 -issa를 차용했는데 프랑스어에서 -sse가 된다: abbatissa는 여자 수도원장(l'abbesse), advocatissa는 변호사의 아내를 의미했다.

태와 관련하여서 -eresse와 -gesse를 대표적인 어미의 예가 있는데 중세 말기까지 이 접미사는 속어를 중심으로 대중 언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꾸준히 사용된다. 여성 접미사의 특징으로서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poétesse, ministresse, mairesse와 같은 특정 여성 명사들은 poète, ministre, maire의 기능을 맡는 여인들을 나타내는 명사로서가 아닌 평가 절하적인 표현에 활용되었다.<sup>7)</sup> 코르뷔 쥐스틴Cobut Justine은 중세시대에서 직업이나 직책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명사의 여성형이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백년전쟁이라고 비에노 엘리안Viennot Éliane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sup>8)</sup>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성은 여전히 특정 영역의 전문적인 직업에서

- 6) 예를 들어 남성형인 le boucher는 이 직업의 기능을 의미하고 여성형태인 bouchère는 이 직업을 하고 있는 남자의 아내를 지칭했다. 또한 12세기까지 존재하였던 mairesse의 경우 1990년까지는 시장의 아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여 시장을 나타내기 위해 femme-maire라는 새로운 어휘를 수용하게 되었다.

Dawes Elisabeth, "La féminisation des titres et fonctions dans la Francophonie : De la morphologie à l'idéologie", *Ethnologie*, vol.25, n° 2, 2003,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Rapport sur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fonction, grade ou titre, octobre, 1998.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coeter/feminisation/4contraintes.html>

- 7) 그러나 귀족의 직위와 관련하여서는 -eesse의 어미(baronnesses, comtesses, princesses, reines)는 15세기 대중 언어에서 더 이상의 저속적인 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

Bequier Annie, *Femme, j'écris ton nom - Guide d'aide à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s, titres, grades et fonction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9, p.126.

- 8) "(...)Un grand changement arrive à la fin du Moyen Âge alors que la guerre de Cent ans dévaste la France. Louis X le Hutin choisit d'évincer sa fille (Jeanne de Navarre) à qui devait revenir la couronne au profit de Philippe V. La loi salique sera invoquée quelques années plus tard pour prouver la légitimité de cette action. On assiste donc à une récupération de la loi salique qui datait de Clovis. Cette loi, qui s'avérera être une fausse, provoque l'exclusion des femmes au trône, entraîne la dégradation des conditions d'existence des femmes et réduit ainsi leurs libertés. (...)”

Viennot Éliane, *La France, les femmes et le pouvoir : l'invention de la loi salique*, Paris, Perrin, 2006, p.765.

배제되었고 오히려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의 여성형은 퇴보한다. *reines, ambassadrice, académiciennes*와 같은 직책과 관련된 여성형 명사들은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남자들의 아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5세기 후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여성들을 가르키는 직업명사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자수나 레이스 수공업자들이다. *brodeuses, fileuses, crocheteuse* 등과 같은 여성형 명사들이 생겨났다. 그렇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17에서 18세기까지 여성화된 직업 명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웃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직업명사의 여성형에 대해 철저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인들은 일할 자격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되는 듯 보이지만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다는 혁명의 기본 정신과는 달리 여전히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1804년 나폴레옹 민법은 여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 문법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기존에 여성 형태를 만들기 위한 규칙들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지만 여성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이 농사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남자들을 대신하여 맡음으로서 직업 명사들이 여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 *aiguilleuse, camelote, cheminotte, livreuse, ouvrière*을 들 수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법학적 측면에서 여전히 불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2) 직업명사 여성형의 형태적 구분과 문제점

형태적 특성을 통한 직업명사의 여성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어미 형태의 변형이 없는 경우이다. 남성형의 어미가 -e로 끝나는 경우 남성형과 여성형 사이의 형태적 구분이 없으며 관사의 차이를 통해 성이 구분된다. 사실 남성형과 여성형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 ① 직업 명사의 남성형의 어미가 모음(-e, -a, -o, -u)으로 끝나는 경우:

un(e) architecte, un(une) soprano, un(une) bouffeur, un(une) tuba.

- ② 외국어에서 유래된 명사나 축약 형태의 경우:

un(e) clown, un(une) gourou, un(une) jockey, un(e) judoka.

- ③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따른 유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남성만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경우 여성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femme’란 단어를 사용하여 직업 명사 뒤에 붙이거나 또는 femme를 부사적 용법으로 활용하여 명사 앞에 쓰는 경우이다. 두 경우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여성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관사를 여성형을 쓸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관사를 여성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 professeur의 경우, 2009년 DELF 시험에서 professeure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기사의 일부분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Le malaise a été tel que la majorité des élèves a quitté la classe.

Ce vendredi, une professeure d'anglais du lycée Gustave-Flaubert de Rouen a demandé à des élèves de terminale S, peu après 8h, d'observer une minute de silence à la mémoire de Mohamed Merah, le terroriste tué par le Raid jeudi à Toulouse."

(publié dans *L'EXPRESS*, le 2 mars 2012)

- ④ 남성 형태가 동사나 명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un/une ingénieur, un/une procureur, un/une professeur

반면에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un ambassadeur/une ambassadrice,

un prieur/une prieure,

un supérieur/une supérieure.

둘째로, 어미에 변형이 있는 경우이다. 남성형의 어미가 -é 또는 -i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여성형은 끝에 -e를 첨가(un attaché vs une attachée, un chargé vs une chargée, un apprenti vs une apprentie)한다. 어미에 -e를 붙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① 단어 끝에 -e를 붙이는 경우:9)

a) 일반적인 경우

un artisan / une artisane,  
un lieutenant / une lieutenant,  
un magistrat / une magistrate

b) 마지막 자음을 중복하고 -e를 붙이는 경우

un contractuel / une contractuelle,  
un chirurgien / une chirurgienne,  
un doyen / une doyenne,  
un mécanicien / une mécanicienne,  
un maçon / une maçonne.

c) 마지막 자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e를 붙이는 경우

un créatif / une créative,  
un syndic / une syndique.

d) 마지막 모음 위에 `를 붙이는 경우

un conseiller / une conseillère,  
un huissier / une huissière,  
un officier / une officière,  
un préfet / une préfète

② 남성명사의 형태가 -eur로 끝나는 경우

a) 동사 또는 명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경우 여성형의 어미는 -euse가 된다:10)

동사 : démarcher > un démarcheur vs une démarcheuse

carrer > un carreleur vs une carreleuse

chercher > un chercheur vs une chercheuse

---

9) 반면 une junior(e), une major(e), une sénior(e), une camelot(e), une matelot(e)와 같이 -e를 붙이는 것이 선택사항인 명사들도 있다

10) 주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défendeur, demandeur, vendeur의 여성형의 경우 -esse가 된다. 사법과 관련한 직업 명사에 대한 여성화에 대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이다.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cogether/feminisation/6juridique.html>

contrôler > un contrôleur vs une contrôlease

명사 : avion > un avionneur vs une avionneuse

camion > un camionneur vs une camionneuse

piste > un pisteur vs une pisteuse

football > un footballeur vs une footballeuse

b) -teur 로 끝나는 다음 세 가지의 경우 -trice가 된다:

- 동사에서 파생되지 않았을 경우 :

agriculture > un agriculteur vs une agricultrice,

aviateur > un aviateur vs une aviatrice,

institut > un instituteur vs une institutrice.

- 어미에서 -t를 포함하지 않은 동사에서 파생된 경우

calculer vs > un calculateur vs une calculatrice,

conduire > un conducteur vs une conductrice,

former > un formateur vs une formatrice.

- 파생된 형태가 -tion, -ture, -taire, -torat로 끝나는 다른 명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édition > un éditeur vs une éditrice,

lecture > un lecteur vs une lectrice,

administration > un administrateur vs une administratrice,

direction > un directeur vs une directrice, report.

c) 여성형 어미가 -teuse 가 되는 경우<sup>11)</sup>: 어미에서 -t-를 포함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거나 파생된 어족이 -tion, -ture, -taire, -torat로 끝나는 다른 명사를 포함할 때:

acheter > un acheteur vs une acheteuse,

rapporter > un rapporteur vs une rapporteuse

---

11) auteur 또는 pasteur의 경우 마지막에 -e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docteur의 경우는 doctoresse 또는 docteure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sculpteur은 sculptrice 또는 sculpteure 둘 다 사용한다.

앞서 살펴본 직업, 직책, 기능을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한 여성형의 경우 비록 문법적 규칙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예외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과 관련하여 오늘날까지 여성형이 없이 남성형으로 사용됨에 따라 문장에서 문법적 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나 직책 또는 역할을 나타내는 여성형의 명사들 중 어떤 것들은(*préfète, ambassadrice*) 직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자의 아내라는 의미로 여성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책, 기능과 관련된 여성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드물긴 하지만 여성형의 형태가 남성형의 직업 명사와 의미적으로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médecine*는 직업 명사의 *médecin*의 여성형이라기보다 그 의사와 관련된 활동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여성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poète, phophétesse, hôtesse, maire, maître*의 경우는 남성과 동일한 형태 이외에도 여성형 어미 *-esse*를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예, *une maire, mairesse, une maître, maîtresse, une poète, poétesse*). 끝으로 형태적 규칙의 일관성 결여이다. 직업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의 여성형이 지역에 따라 규칙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 형태가 동사나 명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남성형과 여성형이 동일하다고 했지만 프랑스어권의 퀘벡이나 스위스에서는 마지막에 *-e*를 첨가한다.(예, *un assesseur vs une assesseure, un censeur vs une censeure, un commandeur vs une commandeure, un entrepreneur vs une entrepreneure, un gouverneur vs une gouverneure, un ingénieur vs une ingénieure, un professeur vs une professeure, un proviseur vs une proviseure*). 결국 직업이나 직책 또는 기능과 관련한 명사의 여성형에 대해 문법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sup>12)</sup>

12) 직업 명사의 여성화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새로 만들어진 여성명이 귀에 어색하게 들린다거나 동음이의어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근본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회심리적 현상 및 여성 직명 사용에 소극적인 여성들 자신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 “언어와 여성 (II)-프랑스어의 직업, 직책, 직능명의 여성형 만들기-”, 한국프랑스학논집, 2001, 제35집, pp.73-79

### 3) 직업 명사의 여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프랑스어의 직업 명사의 여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형태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미적 요인, 어휘적 요인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이 주장되고 있다.<sup>13)</sup> 베케르A. Becquer와 세르길리Cerquiglino는 직업명사의 문법적 성은 특별한 개인을 지칭하는 경우 지시대상의 성과 함께 일치해야 하지만 명사가 직업이나 직책을 의미할 때에는 남성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sup>14)</sup>

Dans cet hôpital. les fonctions de chirurgien (générique) sont occupées par une chirurgienne (spécifique).

이와 같은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적 제약이 직업명사의 여성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직업명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는 지시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렇지만 의미적 역할이 단지 지시대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직책 또는 업무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직업 명사들은 텍스트 문맥에 따라 개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개인이 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지시대상: ... Cet ancien juge d'instruction, très attaché à l'indépendance du judiciaire, préside aujourd'hui la chambre d'acusation de Paris. (*Le point*, 1996)

기능: Mercredi dernier se tenait, au dojo, l'assemblée générale extraordinaire du club, où les membres présents ont votés

13) Itsuko Fujimura,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s et des titres dans la presse française (1988-2001)", dans *Mot. Les langages du politique*, 2005, n°78, p.41-47.

14) Bequier Annie, *Op.cit.*, p.39.

15) Itsuko Fujimura, *Op.cit.*, p.11-14.

à l'unanimité pour la candidature au poste de président  
d'une femme dynamique en pleine d'idées, .... (*Le  
télégramme*, 2000)

통계자료를 보면 1998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기능과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의미적 역할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추코 후지무라 Itsuko Fujimura는 직업 명사를 전적으로 남성으로만 사용되는 부류(auteur, écrivain, maire, professeur, médecin, ministre, juge, secrétaire)와 그렇지 않은 부류(procureur(e), chercher(se), député(e), avocat(e), conseiller(ère), directeur(rice), président(e))로 구분한 후 199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 명사들의 여성화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président(e)의 경우 오늘날 98%의 여성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procureur의 여성 형태는 1998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procureur의 형태로 1998년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chercheur의 여성 형태인 chercheuse의 경우는 오늘날 60%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avocat(e), conseiller(ère), directeur(rice) 등은 90%가 넘게 사용되고 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업의 기능과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직업 명사에서 여성형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rôle de, poste de, fonction de, mandat de와 같은 표현이 직업 명사 앞에 위치한 경우 이 명사는 관련된 직업의 기능 또는 역할을 의미한다. 반면 지시대상은 선행한 문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직업 명사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기능과 지시대상 사이의 의미적 구분이 반드시 문법적 성에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업 명사의 여성 형태가 기능을 나타내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예들만큼이나 그 수에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미적 구분이 문법적 성을 선택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 명사들의 문법적 성을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적 구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여성형태는 여성의 지시 대상을 가르키는데만 사용되고 이 대상이 행하는 기능을 결코 나타낼 수 없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chercheur*의 경우는 어원적 측면이나 파생 또는 여성화 과정에 있어서 언어학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 빈도가 다른 직업 명사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여성 형태의 사용 빈도가 남성 형태의 형태적 특성(어미가 -e로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되는데 왜냐하면 *président*의 경우 *procureur*나 *chercheur* 처럼 어미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 *auteur*나 *écrivain* 처럼 어미가 자음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형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결국 위의 통계 자료는 직업 명사의 여성 형태의 사용 빈도수와 관련하여 어휘적 요인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구조에 속하는 어휘적 요인이 아닌 언어 외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 명사의 활용은 성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분과 관련된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과 밀접한 연관성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남성의 형태로 지칭되어져 왔다. 또한 직업 명사가 활용되는 영역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irecteur(rice)*, *conseiller(ère)*, *président(e)*의 활용 현황을 통해 1998년 이후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président du Parlement européen*과 *conseiller municipal*이 완전히 여성화되었다고 밝히진 바 있다. 그리고 *directeur de recherche*의 여성화 현상이 늦게 진행된 것에 대해 *directeur de recherche*가 *chercheur*나 *professeur* 처럼 대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직책인 반면 *directeur général*의 경우는 사업이나 행정 분야에서의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치나 행정, 사법 또는 무역과 같은 분야의 직업을 지칭하는 명사들의 경우 여성형의 사용이 늦어진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어학적 사실이나 규칙에서보다는 언어 외적 현상에서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3. 프랑스어권 지역별 여성화 정책현황

프랑스, 벨기에와 퀘벡과 같은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프랑스 본토에서보다 이러한 여성화 작업을 하나의 정책적 의도가 일찍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몇몇 프랑스어권 국가들에서 직업명사와 관련한 여성형태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1) 퀘벡

프라치올라 B. Fracchiolla는 프랑스어의 직업 명사에 대한 여성 형태와 관련하여 우린 제일 먼저 퀘벡을 언급하고 있다.<sup>16)</sup> 그 이유는 퀘벡은 역사적으로 프랑스보다 더 오래전에 직업 명사들의 여성형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79년 7월 28일 *Gazette Officielle du Québec*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방법을 통해 직업 명사의 여성형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7)</sup>

- 이미 프랑스어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 활용 (avocate, infirmière)
- 여성형태의 한정사가 선행하는 남-여가 동일한 형태 활용 (une ministre, une architecte)
- 형태적 규칙에 반하지 않는 여성 형태 개발 (la députée, la praticienne)
- femme 어휘 첨가 (femme-ingénieur, femme-chef d'entreprise, femme-magistrat)

---

16) 사실 1980년에 퀘벡 대학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언어학적 여성형에 대한 지침을 정하게 된 이유는 여대생들의 수적인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여러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쳤는데 가장 일반적인 지침서가 1992년에 출간되었고 여기에는 여성형에 대한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공존하게 하면서 두 개의 성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Béatrice, F., *Ibid.*, p.3.

17) Catarina Pereira & Sónia Santos, "Résister au féminin : le cas des noms de métiers", dans APPF [www.appf.pt/questoes\\_linguisticas/QL\\_8.pdf](http://www.appf.pt/questoes_linguisticas/QL_8.pdf) p.5.

또한 직업을 가진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에서도 이에 발맞춰가야 함이 주장되었다.<sup>18)</sup> 그런데 *femme* +명사 형태를 통해 직업명사의 여성형을 만들려는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이런 단어의 형태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9)</sup> B. Fracchiolla 따르면 명사인 *femme*를 첨가함으로써 어휘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어휘보다는 단순히 어미에 -e를 첨가하는 형태적 방법을 통한 *ingénieure*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eure로 끝나는 여성형태의 장점은 한정사를 복수 형태를 사용했을 때 양성의 형태나 발음상의 애매모호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les ingénieures, les professeurs*).<sup>20)</sup>

남성 형태의 어미가 -teur로 끝나는 직업 명사의 여성형태와 관련하여서는 -teure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une auteure, une metteure en scène*).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직업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양성도 동일한 형태를 선호하였다.<sup>21)</sup> 그 이유로는 몇몇 명사들의 경우 -e가 첨가되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édecine*은 여의사가 아니라 의학, 의술을 나타낸다. *marine*은 여선원이 아니라 항해술, 해상 근무

18) “La féminisation linguistique est à l'ordre du jour. L'actualité de cette question tient au fait que les femmes ont de plus en plus accès à des postes qui, auparavant, étaient réservés aux hommes. Parce que la langue ne reflétait pas suffisamment cet acquis social et professionnel des femmes, on a vu apparaître dans l'usage,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des formes féminines nouvelles.”

*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du Québec, Au féminin. Guide de féminisation des titres de fonction et des textes, 1991, p.5*

19) 예를 들어 *femme-ingénieur*의 형태는 반대 성에 해당하는 형태인 *homme-ingénieur*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주 경험이 짧은 초보 단계의 *ingénieur*를 의미한다.

20) -eur의 어미로 끝나는 직업 명사의 여성형으로써 -eure 또는 -euse 어미를 활용하는 것은 프랑스어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받는데 프랑스 잡지를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 몇몇 형태들(*le ministre, la notaire, la peintre, la poète* 등)을 제외하고는 -eure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une censure, une réviseuse, une gouverneure, une ingénieure, une sculpteure*).

Catarina Pereira & Sónia Santos, *Ibid.*, p.4.

21) Béatrice, F., *op.cit.*, p.6.

등을 나타내는 어휘로 존재한다.

문법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퀘벡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였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치 현상의 유추를 통해 가장 인접해 있는 단어와 일치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un étudiant, une étudiante의 성의 일치를 중심으로 une boulangère와의 유추를 통한 une policière, une compositrice 의 유추를 통한 une autrice, une pharmacienne 의 유추를 통한 une chirurgienne, une bédouine의 유추를 통한 une témouine 등이 있다.<sup>22)</sup>

의미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의미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형인 un compère는 친구를 의미하는 반면 여성형태인 une commère는 수다라는 의미로, un gars는 평범한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여성형인 une garce는 부정적 또는 비어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un courtisan은 직공의 평범한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여성형인 une courtisane는 창녀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un entraîneur는 스포츠에서 코치를 나타내는 반면 여성형인 une entraîneuse 는 성적 유희를 제공하는 여자를 나타냈고 un coureur는 스포츠 용어로 마라톤 경주자를 의미하는 반면 여성형인 une coureuse는 성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비어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2) 벨기에

1989년 3월, 벨기에 정부는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태에 대한 첫 번째 법령을 제안하였고 마침내 1993년 6월 법령이 채택되었다.<sup>23)</sup> 법, 행정, 교과서 등 공공 분야의 문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정책을 위해 벨기에 프랑스어 아카데미 학회는 *Mettre au*

---

22) Béatrice, F., *ibid.*, p.6.

23) Anne Dister,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fonction, grade ou titre en Belgique francophone. Etat des lieux dans un corpus de presse", dans *JADT*, 2004, p.313

*féminin*이라는 안내 책자를 출간한다. 이 저서의 목적은 행정 분야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여성형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반 분야에서는 제약을 두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성 형태를 점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4년에 직업, 기능, 직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태에 대한 안내서(*Guide de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fonction, grade ou titre*)가 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여성형태의 규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직업 명사와 관련된 여성형태의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B. Fracchiolla는 프랑스어가 갖는 문어와 구어의 구분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프랑스어의 문어체에서는 남성과 여성 형태를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반면 구어체의 경우는 발음상으로 명사의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이전에 남자들에게만 허용되던 직업을 맡게 된 여성들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남성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여성화에 대한 반대가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1994년 규칙의 제정 이후 1500개의 명사들을 알파벳 순으로 목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auteure나 écrivaine 와 같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들이 사용되었다.<sup>24)</sup> 2005년 여성형에 대한 두 번째 저서가 등장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une professeur/ une professeure) la maire / ma mairesse 등 두 개의 여성형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때까지도 명확한 규범적 사용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에 따라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의 형태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24) B. Fracchiolla, *Ibid.*, p.4.

### 3) 프랑스

1984년 프랑스 정부는 Yvette Roudy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직업 및 직책의 여성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였는데 마침내 1986년 3월 18일 기능, 등급, 직책 등과 관련하여 직업 명사의 여성형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이 제정되었다.<sup>25)</sup> 그러나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어에서 남성이라는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eorges Dumésil 과 Claude Lévi-Strausse 교수에게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1997년 12월 17일, 수상인 Lionel Jospin 과 대통령인 Jacques Chirac은 국가 행정직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이번에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9일 잡지인 Figaro에 언어학적 측면과 용법의 개념에 따른 두 가지 논거를 펼쳤다.

언어학적 근거와 관련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Georges Dumésil 과 Claude Lévi-Strausse 교수의 논증을 인용하였는데 남성의 형태는 어떠한 명사를 또 다른 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형태이며 여성형은 제약적이다.<sup>26)</sup> 또한 상업(boulangère)이나 교육(institutrice)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랑스어권 국가들 사이에 여성형태의 경우 임시적인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professeure, ingénieure, auteure, docteure 와 같은 여성 형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27)</sup> 위 경우처럼 프랑스어는 성의 대립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구분을 허용하는 형태소들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나타내기 위해 남성형태의 명사들을 사용하거나(un

25) 예를 들어 une, la, cette와 같은 한정사의 여성형태의 용법을 통해 여성형을 표현하게 하였다. 문어에서 묵음 <e>로 끝나는 une architecte, une comptable 등의 명사들은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같게 하였다. 그리고 une poétesse와 같이 <esse>로 끝나는 여성형 접미사는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하였다.

26) B. Fracchiolla, *Ibid.*, p.4.

27) <http://www.academie-francaise.fr/actualites/feminisation.asp>

mannequin), 군대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estafette 와 같이 남성을 나타낼 때 여성형태의 명사를 사용한다. 이 명사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유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언어가 변화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998년 당시 수상이었던 리오넬 조스팽이 주관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1999년 출판되었고 프랑스를 비롯한 벨기에, 퀘벡, 스위스 등 프랑스어권 국가들에 있어서 직업 명사의 여성형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up>28)</sup>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즉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직업명사의 여성형은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의미-활용적 문제로서 언어에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균형의 두 형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한편으로 문법적 불균형의 문제로서 성의 일치가 원칙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의미적 불균형이 그것이었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직업명사의 여성형 형태가 지역간 또는 사회간 유용되는데 차이가 있으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는 프랑스어어가 외국어이며 이를 학습하는 입장이나 교육하는 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오류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여성화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앞선 연구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던 직업명사의 여성형에 관련된 자료나 예문들을 질문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4. 직업 명사의 남성/여성 어휘의 학습방안

직업 명사의 여성형 문제는 프랑스 원어민에게조차 쉽지 않은 학습의 주제이며, 언어학자나 문법학자들 역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나 규칙을 통해

28) B. Fracchiolla, *Ibid.*, p.4.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직업 명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뜻하지 않게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효율적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던 직업 명사들의 여성화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 학습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는 2011년 2학기 교양 수업으로서 초급 불어 학습자 95명과 전공과목인 프랑스어 작문 수업 참여자 31명의 것이다. 먼저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는 직업 명사로서 남성의 형태를 기본으로 여성형을 만드는 직업 명사들을 선정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성 명사들을 적게 하였다. 이는 해당 직업명사의 여성형에 대한 문법적 규칙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의도로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9)</sup>

〈표1〉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는 직업 명사들의 여성형 쓰기에서의 오류(1)

남성 어미	여성 어미	예	대상	
			교양	전공
-e	동일	un/une élève, un/une journaliste	4	1
-ien	-ienne	un musicien / une musicienne	6	4
-eur	-euse	un chanteur / une chanteuse	11	7
-teur	-trice	un acteur / une actrice	14	8

학습자들 중 오류를 범한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므로 사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형에 대한 그 어떠한 효율적인 방안을 교수자 또는 학습자에게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연습 유형의 심화 학습으로서 어미의 변화를 통해 여성형을 생성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들로 구성하였는데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sup>30)</sup>

29)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는 직업 명사들을 선정 대상으로 하였고 때문에 -teur로 끝나는 직업 명사들 중 여성형태의 어미가 -trice가 아닌 auteur, docteur, pasteur, acheteur, batteur, transporteur 등은 연습문제에서 제외시켰다.

## 〈표2〉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는 직업 명사들의 여성형 쓰기(2)

여성 어미	예	대상	
		교양	전공
마지막 자음을 중복하고 -e를 첨가	un doyen vs une doyenne un maçon vs une maçonne	11	16
마지막 자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e를 첨가	un créatif vs une créative	25	19
마지막 모음 위에 `를 붙이는 경우	un épicier vs une épicière un boulanger vs une boulangère	43	25

첫 번째의 경우에 비해 학습자들의 오류 수는 증가 하였다. 특히 마지막 유형에서의 오류는 학습자들이 명사의 여성형을 만드는 문법적 규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학습할 기회가 많은 반면,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거의 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학습 유형은 프랑스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 명사들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실제 학습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직업 명사들을 선정하여 여성형태를 쓰게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표3〉 문법적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직업 명사들의 여성형 쓰기

어휘	유형		
	auteur	ingénieur	professeur
auteur	auteure	auteuse	autrice
ingénieur	ingénieure		
professeur	professeur	professeure	
agriculteur	agricultrice	agricultrice	
conducteur	conducteuse	conductrice	
rapporteur	rapporteuse	rapportrice	
acteur	actrice		

30) 앞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여성형태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할 만한 예들 (-é 로 끝난 명사의 경우 -ée : un député / une députée 아니면 un femme député 인가 등)을 다루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와는 달리 위에서 제시한 직업 명사들에 대한 여성형은 학습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어미가 -eur로 끝나는 명사들보다 -teur로 끝나는 명사들에 대해 학습자들은 여성형을 선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문법적 규칙 차원에서 -eur로 끝나는 명사들의 여성형에 대한 규칙보다 -teur로 끝나는 직업 명사들에 대한 규칙이 더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professeur나 acteur의 경우는 다른 동일한 명사들에 비해 오류 수가 훨씬 적었는데 이는 교수자들이 직업 명사의 여성형과 관련하여 학습 현장에서 대표적인 어휘로서 소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업 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과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초급 단계 학습자의 경우 여성형을 학습자가 직접 채워 넣기 보다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먼저 예시문을 주고 직업 명사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자료로 제공되는 직업 명사 어휘들은 문법적 규칙이 비교적 잘 적용되는 대표적인 명사들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어진 자료를 통해 올바른 형태를 인지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직업명사의 여성형에 해당하는 남성형을 -e, -eur, -teur 등 형태별로 구별하여 적용해보도록 함으로써 심화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학습 활용 방안으로는 문장을 주고 해당하는 직업 명사의 여성형태로 바꿔 문장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이 학습은 직업 명사의 남성과 여성 형태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문법적 일치 학습까지 병행할 수 있다. 몇몇 문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Le pharmacien vend les médicaments que le docteur prescrit.
2. Le professeur est un enseignant de lycée ou d'université.
3. Le médecin et l'infirmier s'occupent de la santé des gens malades.
4. Mon frère est pompier. Il est petit mais beau.

다른 학습 방안으로는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직업 명사의 남성형을 주고 여성형의 형태로 다시 쓰게 하는 방법이 있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프랑스어의 직업 명사의 여성화 현상과 관련하여 언어학적 관점과 언어 외적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오늘날 직업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직업명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법이나 사회적 규칙 속에서 일부면 얽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사적 관점에서 직업 명사의 여성화 현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 과정을 겪는지 간파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어권 국가들에서 적지않이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불구하고 직업 명사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진보적 정책들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법적 규칙에 따른 직업 명사의 여성 형태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직업 명사의 여성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의미적 요인, 어휘적 요인,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파악되어진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유형과 그에 대한 분석은 직업 명사의 여성화에 대한 효율적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언어를 교육한다는 것은 동일한 언어에 대한 변이적 차이를 이해하게 해주는 공식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역사적인 설명 속에서 어휘, 문법 그리고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성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 명사의 여성형에 대한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의 여성화 현상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 향상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성 있는 규칙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직업 명사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형태의 고착화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들 중 하나는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다. 여전히 직업명사들의 남성형태에 대해 중요성과 우월성을 부여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같은 일부 학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은 원칙적인 문법적 규칙에 따른 방식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개방적 학습 방식일 것이다.

---

#### 주제어

직업명사, 여성화, 의미적 불균형, 의미적 요인, 어휘적 요인, 사회언어학적 요인

#### ❖ 참 고 문 헌

- 김경숙, 「직명어휘의 여성화」, 프랑스학연구, 제46집, 2008, pp.37-56
- 김은희, 「언어와 여성 (II) : 프랑스어의 직업, 직책, 직능명의 여성형 만들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5집, 2001. pp.65-86
- 김은희, 「언어와 여성 (III) : 언어의 여성화, 직명의 여성화와 텍스트의 여성화」, 프랑스어문교육, 제26집, 2007. pp.151-179
- 김진수, 「2005년 이후 퀘벡 언어정책의 방향」, 불어불문학연구, 제68권, 2006, pp.447-467
- 서덕렬,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et des titres en France et au Québec」, 불어불문학연구, 제81집, 2010, pp.491-511
- 정상현, 「독일어 어휘형태상의 성편견현상과 그 비판」, 언어연구, 1992
- Béatrice, F., "Anthropologie de la communication : la question du féminin en français", dans *CORELA*, 2008, Vol.2, Publié en ligne le 15 décembre

2008.

URL : <http://corela.edel.univ-poitiers.fr/index.php?id=286>

- Bequer, A., *Femme, j'écris ton mon - Guide d'aide à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titres, grades et fonction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9.
- Boel, E., "Le genre des noms désignant les professions et les situations féminines en français moderne", dans *Revue Romanes*, n°11, 1976, p.16-73.
- Bouchard P.,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de fonctions, de grades ou titres : au Québec, en Suisse romande, en France, en communauté française de Belgique*, Bruxelles, Duculot, 1999.
- Cataria Pereira & Sónia Santos, "Résister au féminin : le cas des noms de métiers", dans *APPF*, pp.1-8
- Dawes, E., "La féminisation des titres et fonctions dans la Francophonie: De la morphologie à l'idéologie", dans *Ethnologie*, 2003, vol.25, n°2
- Dister, Anne,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fonction, grade ou titre en Belgique francophone. Etat des lieux dans un corpus de presse", dans *JADT*, 2004, pp. 313-324
- Houdebine, A-M., "Sur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en France", dans *Recherches féministes*, vol.5, n°1, 1992, p.153-159.
- Houdebine, A-M.,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Paris, L'Harmattan, 1998.
- Itsuko. F. & Itoigawa. M.,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en France et en espagnol, Gengo Bunka Ronshu, n°23-1, p.141-156.
- Itsuko F.,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s et des titres dans la presse française(1988-2001), 2005, dans *Mot. Les langages du politique*, 2005, n°78, p.37-52.
- Khaznadar, E., "Masculin et féminin dans la dénomination humaine : linguistique et politique. Aperçu de la pratique québécoise", dans *Le français moderne*, n°LXVIII-2, p.141-170.
- Sullerot Évelyne, *Histoire et sociologie du travail féminin : essai*, Paris, Gonthier, 1968, p.379.
- Viennot Éliane, *La France, les femmes et le pouvoir : l'invention de la loi salique*, Paris, Perrin, 2006, p.765.

Yaguello M., Les mots et les femmes : essai d'approche sociolinguistique de la condition de la féminine, Paris, Payot, 2002.

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 Rapport sur la féminisation des noms de métier, fonction, grade ou titre, 1998.

<http://www.orthozen.com/regles-orthographe-feminin-masculin-mettre-au-feminin-les-noms-de-metier,r63,t13,a39,fr.html>.

<http://culture.gouv.fr/culture/dglf/cogether/feminisation/4contraintes.html>.

❖ ABSTRACT

## The study on feminization of French occupational nouns: comparative analysis in the Francophonie

CHOI In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concerning feminine forms of nouns which indicates occupations in French. In distinguishing the French masculine and feminine forms, many linguistic issues about feminizing occupational nouns became a hot issue among scholars. However, reasonably logical and effective methods to solve such issues are not suggested yet.

The first part is focused on how the feminine forms were historically altered to investigate changing process of nouns representing jobs. Through this, we found that the occupational nouns' feminization is quite related to the social big changes, the woman's social condition and reality reflecting on languages periodically. We discussed the important factors deciding such changes, such as semantic, linguistic and sociolinguistic causes, in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And we mentioned issues which can be suggested in investigating grammatical rules of the feminine form of occupational nouns. The last part is on plans to learn the feminine form of occupations in an effective way.

The language is being developed while it is closely related with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people who use the languages. In this meaning, occupational nouns' feminization is a good example which can reflect chron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rough the thesis, we know that it is not enough to provide explanation of changes of feminine occupational nouns about the woman's social roles' alteration. We just hope it can

be at least a small help in doing more systematic and deeper analysis which can show the fact that languages reflect the phenomenon of social changes.

---

**Keywords**

nouns of job, feminization, imbalance of meaning, semantic factor, lexical factor, socio-linguistic factor

논문접수일: 2012. 05. 11

심사완료일: 2012. 06. 11

게재확정일: 2012. 06. 15